

15세기 상층여성의 문식성(literacy)과 읽기교재 『내훈』

이경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고전문학
sitayana@hanmail.net

- I. 국어교육의 전통과 『내훈』
- II. 중세 여성어문교육의 명분과 실제
- III. 읽기교재로서의 『내훈』
- IV. 『내훈』 편찬의 어문교육사적 의의
- V. 맺음말

I. 국어교육의 전통과 『내훈』

이 논문은 15세기 후반에 간행된 『내훈』이란 텍스트가 당대 여성들의 어문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편찬된 『내훈』은 어문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엄연한 하나의 ‘읽기교재’¹⁾이다. 소혜왕후가 서문에서 밝힌바 『내훈』 편찬의 목적은 애당초 언어문자의 교육에 있지 않았다 해도, 실질적으로 이 텍스트가 가지는 어문교육적 기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훈』의 어문교육 교재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어교육의 목표를 담아내는 핵심 개념으로서 최근 국어교육학계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식성[文識性, literacy]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어문교육을 위한 읽기교재로서 『내훈』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과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도 유용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어문교육용 교재로서 가지는 15세기 『내훈』의 성격을 ‘여성의 문식성’이란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소혜왕후의 『내훈』은 조선 최초의 규훈서인 만큼 선행 연구가 적지 않은데, 여성학이나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유교윤리의 가부장성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²⁾ 조선의 대표적인 규훈서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훈』의 판본사향이나 『내훈』 편찬에 이용된 중국 고전들과의 관계와 같은,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밝히는 논문들은 비교적 최근의 성과이다.³⁾

- 1) 교재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 과정에서 동원하는 일체의 자료”를 가리키며, 교과서란 “교육과정 내용을 가장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다룬 공식 교재”를 가리킨다.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과 사고』(역락, 2007), 338쪽. 중세 교육현장의 특성상 일반 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수업’이 존재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내훈』이 일정한 교육 목표와 교육받을 대상을 상징하고 만들어진 의도된 교육용 자료라는 점에서 ‘교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 2) 『내훈』의 가부장적 윤리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김진명, 「가부장 담론과 여성 억압 - 내훈서 및 의례서 분석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33(1994); 조경원, 「유교 여훈서의 교육원리에 관한 철학적 분석」, 『여성학논집』13(1996); 조경원,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분석」, 『여성학논집』12(1995); 고은강, 「내훈 연구 - 유학의 여성윤리」, 『태동고전연구』18(2002); 양현아, 「예를 통해 본 ‘여성’의 규정: 여성교육서를 중심으로」, 『유교의 예와 현대적 해석』(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4) 등이 있다.
- 3) 최연미, 「소혜왕후 한씨 내훈 판본고」, 『서지학연구』22(2001); 김연순, 「조선시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5); 이경하,

본고에서 여성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읽기교재로서의 성격을 논의하는 것은 『내훈』 텍스트가 가지는 다각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한 이 논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되는 근대 이전 시기의 국어교육사⁴⁾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중세 여성어문교육의 명분과 실제

여성의 문식성과 관련하여 15세기 『내훈』을 읽기교재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중세라고 불리는 시대⁵⁾ 여성의 어문교육에 대해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었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중세의 가부장적 유교질서가 여성의 어문교육, 특히 문자교육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을 여기서 새삼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혹은 것처럼 억압적이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성들의 글쓰기와 글읽기가 꽤 활발했었다고 중세를 변호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성을 위한 읽기교재로서 『내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자교육에 대한 ‘금지/승인’의 이중적인 태도가 중세 시기 동안 견지되었던 대전제였음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음은 여성의 문자교육에 대한 중세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글들이다.

① 사마온공이 말했다. “여자는 여섯 살에 소소한 여자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일곱 살에 〈효경〉과 〈논어〉를 외우고, 아홉 살에 〈논어〉와 〈효경〉과 〈예제〉 등의 글을 강론하여 큰 뜻을 대략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간혹 딸에게 노래와 시를 짓고 세속 음악의 연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마땅하지 않다.”⁶⁾

『『내훈』과 ‘소학·열녀·여교·명감’의 관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2008).

- 4) 김성룡은 고전문학교육이 ‘고전문학에 대한 교육’과 ‘고전시대의 문학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후자의 측면에서 고전문학교육의 통시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김성룡, 「전범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창간호(1997)). 조희정은 중세의 고전 리터러시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어교육사의 시원을 근대 계몽기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조희정, 「고전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구도 - 근대적 변화 양상의 검토를 통해」, 『국어교육학연구』21(2004)).
- 5) 중세란 언어문자생활을 기준으로 하여 “문명권 단위로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이 공존했던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조동일,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지식산업사, 1999)). 다만 이 논문에서 중세라고 할 때 실제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시기는 민족어문자인 한글이 창제된 이후인 조선시대에 한정한다.

② 이천 선생의 어머니 후부인이 칠팔 세 때에 읽은 옛 시에 “여자는 밤에 외출하지 말지니, 혹 밤에 외출할 때에는 밝은 등축을 잡는다.” 하니 이로부터 날이 어두워지면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미 장성해서는 글을 즐겨하되 결코 문장을 짓지는 않았고, 여인들이 문장을 짓고 글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보고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⁷⁾

③ 부인 여자도 마땅히 시서와 <사기>와 <소학>과 <내칙>을 읽어 역대 나라와 선대 조상의 이름자를 알아야 한다. 그러할 뿐 문필의 공교하고 시사의 찬관함은 오히려 창기의 본색이요, 사부는 부녀자가 할 일이 아니다.⁸⁾

④ 부인은 經書와 史書, <論語>, <詩經>, <小學> 그리고 <女四書>를 대강 읽어 그 뜻을 통하고, 여러 집안의 성씨, 조상의 계보, 역대 나라와 성현의 이름자 등을 알아들 뿐이요, 함부로 詩詞를 지어 외간에 퍼뜨려서는 안 된다.⁹⁾

상기 인용문들은 모두 조선시대 유명한 규훈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①②는 『내훈』이 『소학집성』 본주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본래는 사마온 공과 이천의 글로 추정되는 중국 고전에서 가져온 것들이다.¹⁰⁾ 복송을 대표하는 학자인 사마광과 정이는 바로 주자성리학으로 대변되는 중세후기 사상의 모태가 되었던 사람들이고, ③④의 저자 역시 16세기와 18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 남성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여성의 문자교육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마광의 시대로부터 이덕무의 시대까지 일관되게 견지되는 동일한

6) 『內訓』 「母儀章」, “司馬溫公이 曰호되 女子ㅣ 六歲에 始習女工之小者호고 七歲에 誦孝經論語호고 九歲에 講解論語孝經及女戒之類호야 略曉大意니 今人이 或教女子以作歌詩호며 執俗樂호는 殊非所宜也ㅣ니라.”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내훈』 텍스트는 1573년(선조6) 간행된 일본 봉좌문고본이다. 내훈의 판본사항에 대해서는 최연미, 앞의 논문 참조.

7) 『內訓』 「言行章」, “伊川先生이 母侯夫人이 七八歲時에 誦古詩曰호되 女子ㅣ 不夜出호는 尼 夜出乘明燭이라 호고 自是로 日暮則不復出房閣호되니 旣長호야 好文호되 而不爲辭章호며 見世之婦女ㅣ 以文章筆札로 傳於人者호고 則深以爲非호되라.”

8) 이황, 『규중요람』 “부인녀즈로도 맞당이 시서와 사기와 소학과 너측틀 일거 역디의 느라 이름과 선디 조상의 명자틀 알디니 그러호을분 필의 공교호고 시스의 찬관함은 오히려 창기의 본식이오 사부가 부녀의 헝헝 비 안니라.”

9) 이덕무, 『士小節』 卷7, 「婦儀」, “婦人當略讀書史論語毛詩小學書女四書, 通其義, 識百家姓, 先世譜系, 歷代國號, 聖賢名字而已, 不可浪作詩詞, 傳播外間.”

10) 사마광의 말을 인용한 ①은 원출전이 미상이다. 『家範』이나 『書儀 - 居家雜儀』로 의심되나 내훈의 문장과 일치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후부인의 언행을 기록한 ②는 본래 『伊川文集』 <上谷郡君家傳>에 있는 문장으로, 주희와 여조겸이 함께 편찬한 『近思錄』에도 인용되었다.

주장은 첫째, 여자도 경서와 역사서를 읽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역사와 성현과 조상의 이름을 아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 둘째, 여자가 시문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완전히 금하지는 않되, 분명한 한계를 두고 있다. 쓰기를 금하고 읽기의 목적과 범위에 제한을 두었는데, 여기서 논의의 대상은 물론 '상층여성'의 '한문' 교육에 한정된다. 한글로 요리서를 쓰는 행위는 오히려 권장되고 기녀의 시문 창작은 당연시되었다.

여성의 문자교육에 대한 중세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처럼 금지와 승인의 이중적인 면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글사용보다 한문사용에서, 읽기보다 쓰기에서, 일상적·사적 글쓰기보다 문예적·공적 글쓰기에서 여성의 어문활동에 대한 암묵적인 '금지'의 수위는 더 높고 엄격했다.¹¹⁾ 여성들 스스로 자기검열을 통해 그러한 '상징적 지배'에 공모함으로써 여성어문생활이 한편 위축되면서 다른 한편 확장될 수도 있었다.¹²⁾

집안과 개인에 따라서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는 비공식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금지와 승인의 태도가 더욱 더 미묘하게 얽혀있다. 영수합 서씨의 행장에서 아들 홍석주가 어머니의 어문활동에 대해 기술한 대목은 조선후기 상층여성의 어문생활 속에 '금지/승인'의 통제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¹³⁾ 한시를 짓는 행위는 양반 여성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이 중세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수합은 한시를 지어 남겼고, 홍석주는 어머니의 시 창작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영수합 당사자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에 한자를 가지고 글쓰기를 했던 여성은 영수합 외에도 그 수가 적지 않다.¹⁴⁾ 양반 여성의 한시 창작을 금하는 것이 조선 사회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실제로 한시를 읽을 뿐 아니라 직접 쓰기도 했던 여성들과, 그것을 용인하고 가끔은 격려하기도 했던

11)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116쪽.

12) 위의 논문, 118-122쪽.

13) 그 대목을 요약하면 이렇다. “④충명하고 영특하며 책읽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⑤여자가 글을 잘하면 팔자가 좋지 못하다 하여 글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⑥남자형제들의 어깨 너머로 書史를 섭렵했다. (그러나) ⑦文字는 부인의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경계했다. (그러나) ⑧남편의 권유로 한시를 지었다. (그러나) ⑨직접 글자를 기록하는 일은 끝내 하지 않았다. (그러나) ⑩결에서 아들이 이를 기록해 詩稿를 엮었다.” 관련 논의는 위의 논문, 114-118쪽 참조.

14)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태학사, 1999), 35-87쪽, 여성한시작가 개관 참조.

주변 남성들이 엄연히 존재했다.¹⁵⁾ 이러한 명분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무시한 채 어느 한 편만을 확대해서 중세 여성어문교육을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세 여성의 문식성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III. 읽기교재로서의 『내훈』

1. 기능적 문식성

모든 주요 개념들이 그렇듯이 ‘문식성’ 개념도 역사성을 띠고 있다. 협의의 문식성이 읽고 쓰기, 즉 ‘문자 언어의 사용 능력’을 의미한다면, 광의의 문식성은 ‘computer literacy’의 용법에서 보듯이 ‘어느 한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과 활용 능력’을 가리킨다.¹⁶⁾ 문식성 개념을 좁게 해석해서 문자 언어의 사용 능력이라고 정의했을 때도 사실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단일하지 않다. 일차적으로 ‘글자의 지각과 해독’을 의미할 때도 있고,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상이한 권력관계 및 구조 속에서의 행동방식과 말하기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¹⁷⁾

문식성을 정의할 때 그 기본 속성으로 ‘모(국)어’라는 조건을 첨가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분히 근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국어교육학사전』에서는 문식성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 언어의 사용 능력, 즉 모어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¹⁸⁾이라고 정의했는데, 여기서 ‘모어’라는 조건은 협의든 광의든 근대 이전 시기의 문식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공동문어문자와 민족어문자의 이중언어체계가 보편적이었던 중세에

15) 박혜숙은 조선시대 남성들이 여성글쓰기에 관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공식적으로는 여성의 글쓰기를 부정하면서도 자기 가문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화연구』7(2002), 335쪽.

16) 노명완·이차숙, 『문식성 연구』(박이정, 2002), 43-45쪽; 이삼형 외, 앞의 책, 19쪽; 조희정, 앞의 논문, 124쪽.

17) 노명완·이차숙, 앞의 책, 45-46쪽.

18) 조희정, 앞의 논문, 124쪽 재인용.

있어서, 한자문명권의 경우 ‘문자’는 일반명사도 아니고 ‘모어’인 민족어문자도 아니고 공동문어문자인 ‘한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민족어문자가 ‘국어’의 지위를 얻은 것은 바로 어문생활사에서 근대의 특성이다. 중세에는 공동문어문자가 민족어문자에 비해 지위가 훨씬 높았던 만큼, 공동문어문자를 제외하고 민족어문자의 사용만을 가지고 중세의 문식성을 논의할 수는 없다. ‘literacy’란 단어가 “고대 로마 시대에는 학식 있는 사람,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종교 개혁 이후에는 모국어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¹⁹⁾을 의미했다는 것은 협의의 문식성 개념도 통시적으로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문식성 개념의 외연이 매우 넓지만,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즉 ‘기능적 문식성’은 국어교육의 교과적 독자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 간주된다.²⁰⁾ 읽기에 국한해서 생각해 볼 때, 능숙한 독자가 되기까지 학습자의 읽기 능력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읽기란 본질적으로 문자언어를 통한 발신자와 수신자의 의사소통과정으로서, 해독(decoding)과 이해(comprehension)의 두 과정으로 이루어진다.²¹⁾ 문자의 이름을 알고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 사이의 규칙성을 인식하여 활용할 줄 아는 해독 능력이 읽기와 관련된 기능적 문식성의 초보적인 단계라면,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 능력은 기능적 문식성의 보다 고차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쓰기와 관련된 기능적 문식성 역시 말소리를 부호화하는 능력부터 사고와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하게 된다.

국어교육이 일차적으로 기능적 문식성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것처럼 여러 단계에 걸친 읽기와 쓰기의 능력 발달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을 의미한다. 근대 이후의 국어교육이 훨씬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중세에도 기능적 문식성 신장을 도모하는 어문교육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애당초 부덕의 함양을 위해 편찬된 『내훈』이 조선전기 여성들의 읽기 능력 신장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었을까?

우선 『내훈』이 처음 간행된 1475년 당시에 한글로 된 읽기자료가

19) 이삼형 외, 앞의 책, 19쪽.

20) 위의 책, 20-24쪽.

21)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삼지원, 1996), 251쪽.

극히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여성에게 한글을 가르치려 할 때 『내훈』의 언해문이 유용한 읽기교재로 활용되었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내훈』이 여성의 기능적 문식성 발달에 기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자와 한글 모두에 관계된 것이다. 『내훈』 116조목은 한문과 언해문을 함께 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별 독자에 따라 한문 원문만 혹은 언해문만 선택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편찬자인 소혜왕후가 상정했던 독자는 한문을 어느 정도 알면서, 한글도 ‘문자 음성화’로서의 기초적인 해독 능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²²⁾ 한문에 대한 읽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문 원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한글 자모 운용의 원리조차 모르는²³⁾ 사람에게는 언해문 역시 별 쓸모가 없다.

⑤ [한문] 凡人之生이 稟天地之靈 ㅎ며 舍五常之德 ㅎ야

[언해문] 大땡凡뵘흔디 사르뵘 나미 하늘 ㅅ 靈령흔 긔운을 ㅅ며 다스 ㄷ뵘흔 德득을 머구며²⁴⁾

이것은 1573년 간행본 『내훈』 서문의 첫 대목이다.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한문과 언해문에서 한자의 노출방식이다. 한문 원문에는 한글로 구결을 달아 한문 문장의 이해를 돕고, 언해문에는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쓰면서 ‘靈령’, ‘德득’과 같이 한자의 음을 한글로 일일이 병기하여 한자에 대한 읽기 능력을 고양하도록 돕고 있다.

『내훈』의 이런 방식이 조선시대 내내 모든 번역서에 적용된 것은 아니다. 언해문에 원문을 제시하는 방식, 한자와 한글의 사용 방식은

22) 한글창제 직후부터 16세기 전반까지 궁궐 안팎에서 여성들 사이에 국문 사용이 확대되어 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경하,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7(2003) 참조.

23) 증중 22년(1527)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는 애당초 한자 교육을 위한 교재였다. 그런데 권두 凡例에 제시된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의 해설이 한글 자모의 순서와 명칭, 합자법, 팔중성법 등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담고 있어 언문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되었다고 추정된다(김민수, 『국어학사의 기본 이해』(집문당, 1987), 126-139쪽). 16세기 후반 사람인 광주가 장모와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백두현, 「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서강인문논총』22(2007), 183쪽), 한글 창제 직후부터 『내훈』이 편찬된 15세기 후반에 한글 자모의 활용과 관련된 기초적인 교육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아직 없다.

24) 이하 『내훈』 언해문을 인용할 때는 한자에 병기한 한자음을 생략한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모가 많고, 병기 한자음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상독자의 수준과 시대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㉔ 糝逕楊花鋪白氈

길헤 브드텃는 버듛 고즌 흰 시우기 께는 듯호고 (『杜詩諺解』 초간본)

㉕ 糝참逕경楊양花화鋪포白帛帛氈전

길헤 브드텃는 (버듛) 고즌 흰 시우기 께는 듯호고 (『諺解絶句』)

㉖ 糝부드틸참逕길경楊버듛들양花꽃화鋪실포白 흰帛帛시우전

길헤 브드텃는 (버듛) 고즌 흰 시우기 께는 듯호고 (『百聯抄解』 동경대본)

㉗ 참경양화포帛帛전이오

길히 부드잇는 버듛고즌 흰 담을 식랏고

糝逕楊花鋪白氈 (『百聯抄解』 일사본)²⁵⁾

『두시언해』는 1481년, 『언해절구』와 『백련초해』 동경대본은 16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인데, 한문 원문을 제시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㉔는 한문 원문만 제시했고, ㉕는 한자의 음을 한글로 병기했고, ㉖는 한자의 음뿐만 아니라 뜻까지 한글로 병기했다. 이처럼 한문 원문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예상 독자의 수준과 번역서의 용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에는 빠졌지만 ㉔의 경우 언해문에 한자를 한글과 섞어 썼는데, 『내훈』의 언해문처럼 한자 옆에 한글로 음을 병기하지는 않았다. ㉔는 18-19세기에 간행된 『백련초해』 일사본인데, 원문을 한자가 아닌 한글 음으로 적고 구결을 달았고 이어서 언해문을 실었으며 그 뒤에 한문 원문을 붙였다.²⁶⁾

조선후기에는 한문 원문을 한글 음으로만 적고 언해문을 신는 새로운 체제가 일반화되는데, 여성들이 ‘한시를 한글로 향유하는’ 이러한 방식은 조선후기 여성어문생활의 독특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그러나 적어도 1573년 간행본까지 『내훈』 텍스트에서는 한자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 원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언해문에서 한자의 음을 한글로 병기하여 『내훈』 읽기가 한자 학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각 조목마다 한문 원문을 먼저 제시하고 언해문을 붙임으로써, 『내훈』은 ‘글자’뿐 아니라 ‘문장’의 차원에서도

25) 이종목,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ia)」, 『진단학보』 104(2007), 185쪽, 189쪽 재인용.

26) 위의 논문, 181-189쪽.

27) 호연재 김씨의 『호연재유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박무영, 「김호연재의 생애와 『호연재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2001) 참조.

여성의 한문 교육을 위한 읽기교재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내훈』 언해문에는 예상독자층인 여성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한자의 뜻을 풀이해 주는 세주가 종종 첨가되는데, 이런 주석은 한문 원문에는 물론 없는 것이다. 세주가 첨가된 해당 부분만 발췌하여 몇 가지 예를 든다.

⑥ [한문] 嫂叔이 不通問호며 (「言行章」 중에서)
[언해문] 嫂와 叔과 무루물 서르 말며 嫂는 兄의 겨지비오 叔은 남진의 兄弟라

⑦ [한문] 凡視를 上於面則敖호고 (「言行章」 중에서)
[언해문] 뜰읏 보를 ㄴ킷 오르면 傲慢호고 嫂는 업시웁시오 慢은 뜨던히 너길 시라

⑧ [한문] 雖日用三牲之養호야도 猶爲不孝也ㅣ니라. (「孝親章」 중에서)
[언해문] 버룩 날로 三牲奉養을 써도 三牲은 쇼와 羊과 豚래라 호히려 不孝ㅣ니라.

⑨ [한문] 榮陽公이 處身이 如此호되 而每歎范內翰호야 (「夫婦章」 중에서)
[언해문] 榮陽公이 몸 가조미 이 근호되 歎상 范內翰을 范은 姓이오 內翰은 벼슬 일후미라 讚歎호야

언해문에 [] 부분이 세주인데, 이러한 예들은 『내훈』이 단지 한자의 음을 해독하는 차원뿐 아니라 한자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예상독자인 여성들의 기능적 문식성 신장을 돕기 위한 나름의 배려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주석을 이용한 이러한 설명이 한자에 대한 문해력이 높은 일부의 여성독자에게는 지나치게 친절할 것일 수도 있지만, 언해문을 통해 한문 원문에 다가가야 하는 독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내한 외에도 사도, 영윤, 광녹경, 둔전낭중 등이 벼슬이름이라고 밝힌 세주들이 발견되는데, 관직명 같은 것은 여성들에게 특히 낯선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Ⅲ-2장에서 상론하겠지만, 『내훈』 언해문의 세주는 한자어의 뜻을 간단하게 풀이해주는 것뿐 아니라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고전에 대한 지식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중세의 어문체계는 공동문어문자와 민족어문자가 신분과 성별에 따른 위계구조로 이루어져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문식성 자체가 뚜렷한 권력관계의 징표였다.²⁸⁾ 『내훈』은 그러한 이중언어체계의 권력 관계 속에서 상층여성에게 한자와 한글 사용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준 대표적인 읽기교재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을 위한 한문 전적의 번역서가 많이 나오고 소설을 비롯하여 한글 읽기자료가 훨씬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조선후기에는 여성의 기능적 문식성 신장을 위한 읽기교재로서 『내훈』류의 위상이 조선전기에 비하면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문이든 한글이든 문식력이 낮은 초학자를 위한 읽기자료가 귀했던 15-16세기에 『내훈』의 위상은 남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읽기교재가 전달하는 지식이 당대 상층여성을 위해 특별히 선별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고전에 대한 문식성

국어교육 또는 어문교육이 개인의 문식성 신장을 도모한다고 할 때, 그것이 기본적인 언어의 사용능력을 뜻하는 기능적 문식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문식성 개념 자체가 언어문자와 관련하여 매우 넓게 확장될 수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기능적 문식성의 신장, 국어문화의 계승과 창조, 자아성장’²⁹⁾이라는 국어교육이 내세우는 세 가지 목표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즉 국어교육이 추구하는 문식성이란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뿐 아니라 언어문자로 표현되는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며, 나아가 자아성장에도 관여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근대 이후의 국어교육에만 적용되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대 국어교육에서 ‘국어문화의 계승과 창조’라고 한 목표를 중세 어문교육에 적용해 보면 ‘고전에 대한 문식성 신장’³⁰⁾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고전에 대한 문식성이란 고전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고전이란 중세에 각 문명권의 중심부에서 형성되고 주변부로 전파되어 오랫동안 문·사·철의 전범으로 간주되었던 문헌들을 가리킨다.³¹⁾ 중세는 공동문어와 세계종교를 공통분모로 이루어진 문명권

28) 이경하, 앞의 논문(2004), 104-112쪽.

29) 이삼형 외, 앞의 책, 17-27쪽; 윤여탁이 국어/언어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문화 능력의 신장,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전인적 인간상 구현이라고 밝힌 것에도 상통한다. 윤여탁, 「국어교육의 본질과 교과서」, 『선청어문』36(2008), 533-536쪽.

30) 조희정은 이를 ‘고전 리터러시’라고 명명하고, 중세 리터러시의 핵심이 ‘고전 리터러시’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조희정, 앞의 논문, 148쪽.

단위의 세계였고, 문명권의 중심부뿐 아니라 주변부에서도 전범이 되는 고전에 대한 학습과 재창조를 통해 ‘天下가 一家’라는 문화적 동질성과 보편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고전에 대한 문식성은 중세의 지배층이었던 양반 남성이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었다.

양반 여성의 경우, 이중언어체계 내에 젠더권력관계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상층신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전에 대한 문식성’은 요구되었다. 조선시대에 행장이나 묘지명 등에서 여성을 칭송할 때 종종 등장하는 ‘서사에 통달해 식견이 높았다’는 표현은 바로 그 여성의 고전에 대한 문식성이 당대 여성들의 평균 이상이었음을 가리킨다. 규훈서에 흔히 등장하는 ‘여성이 읽어야 할 책’ 목록에서 보듯이, 『시경』 『효경』 『논어』 등의 경서와 『사기』 『사략』 『통감』 등의 역사서, 『소학』 『여계』 『내칙』 등의 수신서 혹은 규범서는 모두 중세 유교문명권의 핵심적인 고전들이다.³²⁾ 이러한 고전 읽기는 일차적으로 한문, 혹은 번역서를 읽는 경우 한글의 기능적 문식성 신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고전이 담고 있는 문명권 지식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요컨대 고전에 대한 문식성 강화를 목표로 삼는 고전 읽기는 문자와 문장의 해독 차원이 아니라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내훈』은 상층여성의 ‘고전에 대한 문식성’ 신장을 위한 읽기교재로서의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을까?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내훈』의 116조목은 ‘소학·열녀·여교/명감’³³⁾에서 발췌한 인용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인용된 선행 텍스트

31) 중세 동아시아 문학의 전범 구실을 했던 선진, 한, 당, 송의 고전 목록은 김성룡, 앞의 논문, 278쪽 참조.

32) 조선 후기 양반 여성들의 행장과 묘지문에는 부덕과 교양을 갖춘 여성들이 읽었던 고전의 제목이 명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유교경전과 역사서, 여성규범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문학의 경우 주로 시경이 명시되고 간혹 두보나 도연명의 시, 출사표 등이 거론된다(이경하, 「17세기 사족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 140(2005), 109쪽).

33) 소혜왕후는 서문에서 “小學烈女教明鑑이 至切且明호되 而卷秩이 頗多호야 未易可曉 玆取四書之中에 可要之言호야 著爲七章호야 以釐汝等호노라.”라고 밝혔지만 그녀가 참고했다는 ‘四書’의 정체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소학』과 『열녀전』은 실체가 분명하지만 『여교/명감』은 그것이 한 권의 책인지 『여교』와 『명감』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四書’라고 했기 때문에 으레 『여교』와 『명감』이 다른 책이라고 여겨왔지만, 『내훈』이 인용한 ‘열녀전’이 실제로 『고열녀전』과 『고금열녀전』 2종이고 ‘여교’와 ‘명

중에 『소학』의 비중이 63-71%, 『고/고금열녀전』이 약 23%에 달한다.³⁴⁾ ‘여교/명감’은 문헌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지만, 『내훈』에서 인용빈도가 높은 『소학』과 『열녀전』은 중세 유교문명권의 대표적인 고전들이다. ‘여교’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지만, 『내훈』이 출전을 ‘여교’라고 밝힌 것 중에 5조목의 원출전이 반소의 『여계』인 것을 보면³⁵⁾ 그것 역시 중국 여성규범서의 고전들을 발췌해 엮은 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내훈의 편찬방식은 이른바 ‘술이부작’이다. 『내훈』의 서문과 발문에서 밝힌바 “取四書之中可要之言”, “撮其切要”는 선행 텍스트들에서 중요한 대목의 문장을 발췌하는 ‘직접인용’ 방식을 의미한다. 선행 텍스트의 인용으로만 이루어진, 상호텍스트성을 극단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비단 『내훈』만의 특징이 아니고 『내훈』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학』의 편찬방식도 그러하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내훈』은 『소학』을 발췌 인용하였지만, 그 문장들의 원출처는 사실 『논어』『안씨가훈』『가범』 등 매우 다양한 고전들이다. 중세의 주요 저작으로 알려진 것들 중에는 “전현의 책 가운데 가장 절실한 구와 단락을 취한 것일 뿐이니, 바로 『근사록』을 수집하던 방법이며 공자의 술이부작의 뜻”³⁶⁾이라는 인식 하에 『소학』의 방식으로 편찬된 문헌이 적지 않다. 그것은 한문을 공동문어로 사용했던 중세 유교문명권에서 통용되는 주요한 텍스트 생성문법의 하나였다. 『내훈』의 독자는 『내훈』 읽기를 통해 『소학』을 만나고, 또한 『소학』을 통해 『예기』『논어』『가범』 등의 고전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내훈』이 고전에 대한 여성독자의 문식성 신장에 기여하는 또 다른 방식은 세주를 통한 부연설명이다. 앞 장에서 『내훈』 언해문이 세주를 이용하여 어려운 한자의 음과 뜻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독자의 기능적 문식성 신장에 기여하였다고 했는데,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감으로 약칭되는 문헌을 추정하기 어려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이경하, 앞의 논문(2008) 참조.

34) 위의 논문, 246쪽 <표1> 참조.

35) 중국 후한의 반소(48-117)가 지은 『여계』는 중국 최초로 여성이 지은 규훈서이다. 반소는 큰오빠인 반고의 뒤를 이어 『한서』를 완성할 정도로 문식력이 높았던 여성이다. 『여계』의 ‘婦行第四’, ‘夫婦第二’, ‘敬順第三’, ‘專心第五’, ‘曲從第六’이 『내훈』의 언해장과 부부장에 전문 인용되어 있다.

36) 정인홍, 『學記類編』 「序文」, “先生此書, 則一就前賢本書中, 節取最切實者, 一句或一段而已, 卽近思蒐集之律令, 亦述而不作之謂也.” 김왕규, 「16세기 사립과의 독서에 대한 답론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 국면」, 『독서연구』10(2003), 60쪽 재인용.

데 필요한 중요한 고유명사에 관하여 역시 세주를 이용한 보충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내훈』 서문의 한 대목이다.

⑩ [한문] 余 | 讀書而至於妣己之唉와 褒姒之寵과 麗姬之泣과 飛燕之讒 ㅎ야 未嘗 不廢書寒心 ㅎ노라. (「序」 중에서)

[언해문] 내 글 읽다가 妣己의 우숨과 褒姒의 榮寵과 麗姬의 우름과 飛燕의 하리에 니르러 [紂] | 有蘇氏를 틈대 [有蘇氏는 나랏 일후미라] 有蘇氏라서 妣己로 紂의게 드러늘 紂 | 惑ㅎ야 아니 드를 마리 업서 맞드는 사르므란 貴히 ㅎ고 아철논 사르므란 주기더니 그 諸侯 | 叛ㅎ리 잇거늘 妣己 닐오디 罰이 輕코 주기미 저그면 威嚴이 서디 아니ㅎ리라 ㅎ야 紂를 달애어 重한 刑罰을 ㅎ라 ㅎ대 다리우리를 달오고 사르므로 들라 ㅎ니 소니 데어늘 다시 구리 기들 밍그라 곱으로 불라 숯불 우회 었고 주글 사르므로 기테 오르라 ㅎ야 妣己의 우수를 돕고 일후를 닐오디 炮烙刑이라 ㅎ니라. (세주 하략) 일즉 글월 앓고 므스매 서늘히 너기디 아니ㅎ야 아니ㅎ노라.

짧은 한문 원문에 비해 언해문의 분량은 상당한데, 그 이유는 소혜왕후가 언급한 ‘달기의 웃음’, ‘포사의 총애’, ‘여희의 울음’, ‘비연의 참소’에 대한 부연 설명 때문이다. 상기 인용한 [] 부분의 세주는 ‘달기의 웃음’을 설명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포사와 여희와 조비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길게 이어진다. 서문의 이 대목 바로 앞에서 언급한 태사와 번희에 대한 세주가 언해문에 없는 것은 그들에 관한 일화가 『내훈』 본문에서 고전의 인용을 통해 상세하게 소개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부연 설명을 위한 세주는 서문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본문에서도 여러 층위에서 세주가 활용되고 있다. 고유명사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⑪ [한문] 夫人者는 二程先生之母也 | 라. (「夫婦章」 중에서)

[언해문] 夫人은 二程先生의 어마님이라. [二程先生은 明道先生과 伊川先生과라.]

⑫ [한문] 蓬登附社之臺 ㅎ샤 以望雲夢之囿 ㅎ샤 (「夫婦章」 중에서)

[언해문] 附社臺에 오르샤 雲夢스 囿를 바라 [附社는 ㅅㅅ 일후미오 雲夢은 못 일후미라.]

⑬ [한문] 夫婦之道는 參配陰陽 ㅎ며 通達神明 ㅎ니 信天地之弘義며 人倫之大節也 | 라 是이로 禮貴男女之際 ㅎ고 詩著關雎之義 ㅎ니 由斯言之컨댄 不可不重也 | 라. (「夫婦章」 중에서)

[언해문] 夫婦의 道는 陰과 陽과이 마즈며 神明에 스므츨니 眞實로 하느라 사랏 큰 義며 人倫의 큰 므디라 이런드로 禮에 男女스 스시를 貴히 너기고 毛詩에

關雎^ㄱ義를 나토니 [關雎는 毛詩 篇^ㄱ 이후미니 關은 암수히 서르 和히 우는 소리오 雎鳩는 毛詩 새 이후미니 卽글 一定^ㄱ 하야 서르 어즈러이 아니흐면 둘히 상네 곶와 노로되 서르 즈올아이 아니하야 卽디 至極^ㄱ 호되 곶히요미 잇느니라. 周文王이나 聖德이 거시고 또 聖女 妣氏를 어드샤 配匹을 사마시늘 宮中^ㄱ 사르미 그 처섬 오실 제 幽閑貞靜^ㄱ 흥 德이 거실식 이 詩를 지서 닐오되 서르 和樂^ㄱ 하시며 恭敬^ㄱ 하사미 雎鳩^ㄱ 1 곶하사다 하니라. 幽는 기쁠시오 閑은 安靜^ㄱ 홀시오 貞은 一定^ㄱ 홀시오 靜은 1^ㄱ스미 조홀사라.] 이를 브터 니르건댄 重히 너기디 아니호미 문하리라.

『모시』에 근거하여 ‘關雎의 義’를 풀이한 ⑬의 세주는 길이가 길지만, 본문에 첨가된 세주의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내훈』의 세주는 여성독자들이 한문 또는 언해문을 통해 해당 대목의 의미를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내훈』이 인도하려는 고전의 세계, 그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와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훈』은 상층이면서도 한문에 대한 소양이 낮은 여성독자들에게 고전에 대한 문식성을 제고하는 유익한 읽기교재일 수 있다. 아직 여성을 위한 읽을거리가 많지 않았던 15-16세기에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한편 ‘고전에 대한 문식성’은 기본적으로 상층신분에게 요구되는 능력인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³⁷⁾ 그것을 고전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할 때, 여성의 경우 고전 ‘읽기’가 비교적 허용의 범위가 넓었던 것에 비하여 고전 ‘쓰기’는 훨씬 더 제한적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 언급했던 정호·정이 형제의 어머니 후부인은 부덕을 갖춘 훌륭한 여성의 전형으로 규훈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정이는 어머니가 글을 좋아했으나 결코 문장을 짓지는 않았다고 했고, 그의 이런 발언은 여성의 한문 글쓰기에 대한 중세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다. 홍석주가 어머니 영수함의 한시 창작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머니는 문자가 부인의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경계했다’, ‘한시를 지은 것은 남편의 권유 때문이었다’, ‘직접 글자를 기록하는 일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37) 조희정, 앞의 논문(2004)과 조희정,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2002)에서 ‘고전 리터러시’에 관한 논의는 상층남성 지식인을 전제한 것이다. 여성의 문식성은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식의 단서가 필요했다. ‘서사에 통달해 식견이 높았지만 드러내지 않았다’는 언급이 여성의 행장이나 묘지명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상투적인 표현인데,³⁸⁾ 이는 고전에 대한 여성의 높은 문해력과 함께 여성의 부덕을 드러내는 효과를 낳았다. 『내훈』이 다양한 고전의 발췌 인용과 세주의 부연 설명을 통해 유교 문명권의 전범이 되는 고전의 세계로 여성독자들을 인도하는 읽기교재로 활용될 수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나, ‘쓰기’의 측면에서 『내훈』이 여성의 문식성 신장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었을지는 회의적이다.

IV. 『내훈』 편찬의 어문교육사적 의의

본질적으로 모든 교육은 인간에게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고 이를 통해 자아성장을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며, 국어교육은 특별히 ‘언어적 사고력’ 신장을 목표로 삼는다고 말한다.³⁹⁾ 인간의 지적 사고의 발달과정을 연구했던 비고츠키(Vygotsky)는 “언어는 개인적으로는 사고 발달의 중심이며, 인류 전체로는 역사적 의식 성숙의 핵심이다.”라고 하여 언어가 사고 발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⁴⁰⁾ 또한 문자언어가 음성언어보다 처리과정이 더 높은 수준의 정신작용이라는 주장⁴¹⁾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문자의 사용능력이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키는 주요 매개일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개인의 문자 사용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사고력을 키우고 나아가 자아성장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비단 근대의 국어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일까? 소혜왕후가 당대 상층여성들을 위해 『내훈』이란 읽기교재를 편찬했던 교육적 목표 혹은 효과도 이와 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소혜왕후가 내훈을 편찬한 의도, 즉 서문에서 부녀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속뜻이 무엇보다 ‘내조자에게 요구되는 부덕의 함양’에 있다는 일반적인

38) 행장과 묘지명 등에서 한문을 이용한 양반 여성의 어문활동을 재현할 때 흔히 동원되는 상투적인 문구들과 그 의미 분석은 이경하, 앞의 논문(2005), 103-109쪽 참조.

39) 이삼형 외, 위의 책, 46쪽, 75쪽.

40) 이삼형 외, 위의 책, 25-27쪽.

41) 노명완·이차숙, 위의 책, 35쪽.

평가에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 소혜왕후가 말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남녀평등 사상에 근거한 근대적인 의미의 여성교육 주장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소학』 『열녀전』 등의 방대한 고전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뽑아 『내훈』 116조목을 엮었던 소혜왕후의 의도를 ‘성역할 교육’에만 국한하는 것은 『내훈』이 유교의 가부장적 윤리에 입각한 여성교육서라는 대전제에 입각하여 오히려 텍스트의 다각적인 면모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

3장에서 논의한바 『내훈』이 갖는 읽기교재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면, ‘문자 사용능력을 통한 사고력 신장과 자아성장’이라는 보편적인 어문교육의 목표 혹은 역할을 『내훈』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문교육을 위한 읽기교재로서 『내훈』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과 효과를 단계적으로 분석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텍스트 읽기를 통해 한문이나 한글의 이해능력을 기른다. 둘째, 『내훈』이 발췌 인용한 고전의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그 시대의 사상과 윤리 혹은 이데올로기를 학습한다. 셋째, 그 학습의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사고의 힘을 기른다. 넷째, 궁극적으로 자아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물론 『내훈』 읽기를 통해 중세 여성들이 획득할 만한 사고력이나 자아의 모습이 유교문명권이 지향한 가부장적 논리에 철저히 귀속되는 것이라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내훈』이 인도한 고전의 세계, 즉 『내훈』이 전달하는 지식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소혜왕후는 『내훈』을 편찬하면서 116조목 가운데 약 70%를 『소학』에서 발췌 인용하였고, 유교문명권에서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였던 성별지식의 대전제들을 『소학』에서 많이 채택하였다. 그러나 전형적인 열녀서사를 비롯하여 ‘보수적인 정절관념’을 취하지 않은 데서 보듯이⁴²⁾ 『소학』이 지지하는 성별지식을 『내훈』이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소학』에서 취사선택한 항목이 성별지식만도 아니었다.

『내훈』에는 성별지식으로 볼 수 없는, 상층신분에게 요구되는 예의범

42) “끓어 죽는 것은 작은 일, 절개를 잃는 것은 큰일”이라고 했던 정이천의 말은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정절관념을 대변하는데, 이 언명이 실린 『小學』 「嘉言」의 조목을 『내훈』은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소학』에는 개가지지 않겠다는 결의를 자해로 표시했던 영녀를 비롯한 유명한 열녀의 고사가 6편 실려 있는데, 『내훈』은 이 중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

절이나 인간 보편의 덕성을 가르치는 조목의 비중이 의외로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밥술을 크게 뜨지 말라든가 국을 후루룩 들이마시지 말라든가 생선이나 고기 뼈를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등의 언명은⁴³⁾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윤리규범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행실에 관한 것이다. 특히 임금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조목들은⁴⁴⁾ 성별보다는 신분을 기준으로 한, 상류층의 남녀가 몸에 익혀야 할 소소한 예의범절이다.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외에도 『내훈』에는 덕성을 갖춘 이상적인 인격, 즉 ‘군자’의 전범들을 예시한, 성별지식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다수 존재한다. 정이천의 어머니 후부인과 같은 유교문명의 이상적인 여성들의 일화도 물론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군자의 덕성을 갖춘 남성 인물의 일화도 비중이 적지 않다. 어떤 장에서는 군자라 할 만한 유명한 상층남성의 일화가 성별지식을 압도한다. 예를 들어 ‘염검장’의 경우, 10조목 가운데 성별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내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마지막 일화, ‘접여의 처’ 고사가 유일하다.⁴⁵⁾ 요컨대 『내훈』 편찬자는 성별지식뿐 아니라 상층여성의 인격형성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고전의 지식들을 채택하여 텍스트를 구성한 것이다.

소혜왕후는 『내훈』 서문에서, 여자들이 길쌈의 굵고 가는 것만 알고 덕행을 가까이 해야 함은 알지 못함이 늘 한스러웠다고 하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원숭이가 관을 쓴 것과 같고 담장을 마주하고 선 것처럼 ‘세상과 소통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⁴⁶⁾ 여자도 남자와

43) 일상생활의 소소한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조목은 「언행장」에 특히 많다. 식사에절을 가르치는 이 조목은 본래 『예기』 「곡례」편에 있던 문장으로서, 남녀를 불문한 가르침이었다. 『소학』이 『예기』를 인용하였고, 『내훈』이 『소학』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내훈』에 실렸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에게만 요구된 성별지식은 아니다.

44) 예를 들면, 『內訓』 「言行章」에서 “曲禮에 曰호되 賜果於君前이어시든 其有核者란 懷其核이니라.”; “論語에 曰호되 君이 賜食이어시든 必正席先嘗之호시며 君이 賜腥이어시든 必熟而薦之호시며 君이 賜生이어시든 必畜之호디시다.”

45) 「염검장」 10조목은 접여의 처 외에는 모두 남성 인물에 관한 일화이다. 안희의 안빈낙도를 비롯하여, 호안국이 존경했던 청렴한 제갈공명, 뇌물을 거절한 양진, 평생 청렴결백했던 사마온공, 감각함에 대한 소신을 편 장문절공, 청사를 좁게 지었던 재상 이문정공 등의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46) 『內訓』 「序」, “大抵호디 男子는 游心於浩然호며 玩志乎采妙호야 自別是非호야 可以持己이니 何待我教而後에 行也ㅣ리오. 女子는 不然호야 徒甘紡織之粗細호고 不知德行之迫雲호느니 是余之日恨也ㅣ라. 且人이 雖素淸通호야도 不見聖學호고 而一旦遽貴호면 則是沐猴而冠이며 面墻而立이라 固難立之於世며 語之於人이니 聖人謨訓이 可謂千金不償矣로다.”

마찬가지로 덕행을 닦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소학』 『열녀전』 등의 고전이 성인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 부녀자들에게 읽히고 싶는데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대목만을 발췌하여 내용을 펴낸다고 했다.⁴⁷⁾

성인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소학』 『열녀전』 등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고전에 대한 문식성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뜻한다. 고전에 대한 문식성은 타인과 소통하고 세상에서 행세하기 위한 방편이며, 성인의 가르침을 들어 덕행을 기르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교양을 “인간의 덕성과 주체성을 키우기 위한 문화적 교육의 내용과 절차”⁴⁸⁾라고 볼 때, 고전에 대한 교양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뿐 아니라 사고하는 힘, 스스로를 성찰하는 힘을 포괄한다. 관을 쓴 원숭이는 고전에 대한 소양이 없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성찰할 힘이 없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소혜왕후는 대단히 지적 욕구가 강했던 여성이다.⁴⁹⁾ 『내훈』 편찬은 소혜왕후의 폭넓은 고전 읽기와 쓰기가 통합된 어문활동의 과정이다. 그 결과물로서의 『내훈』 텍스트는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 기획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어문교육용 도서이다. 그 특별한 기획의 의도가 단지 성역할 교육에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역할 교육만이 목적이었다면 『내훈』 116조목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된 셈이다. 소혜왕후는 『내훈』 텍스트를 통해 당대 여성들을 『소학』 『열녀전』 『여교』 등을 매개로 한 심원한 고전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고전 읽기가 개인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데 얼마나 지대한 힘을 발휘하는가를 소혜왕후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설령 고전 읽기의 어문교육적 기능을 소혜왕후가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고전의 세계로 이끄는 읽기교재 『내훈』의 어문교육사적 의의는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47) 『內訓』 「序」, “小學·烈女·女教·明鑑이 至切且明호되 而卷秩이 頗多호야 未易可曉 卽 茲取四書之中에 可要之言 호야 著爲七章 호야 以釐汝等 호노라.”

48)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1(2009), 14쪽.

49) 이경하, 「15세기 최고의 여성 지식인, 인수대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2006) 참조.

V. 맺음말

본고에서는 『내훈』 텍스트가 중세에 여성독자들의 문식성을 신장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아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읽기교재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문식성 신장이란, 한문이나 한글의 기본적인 읽기능력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중세 유교문명권의 고전이 담고 있는 지식에 접근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았다. 그것은 성별지식뿐 아니라 특히 상층신분이 갖추어야 할 일상의 예의범절에 대한 소소한 지식, 이상적인 인격체로서의 군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것이었다. 또한 『내훈』 편찬자는 각 조목마다 고전의 한문 원문 외에 언해문을 싣고 언해문의 세주를 이용하여 교양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러한 텍스트의 구성은 『내훈』이 어문교육을 위한 읽기교재로서 갖는 두드러진 특성이다. 여성을 위한 읽을거리가 많지 않았던 15-16세기에 있어서는 특히, 어문교육을 위한 읽기교재로서 『내훈』이 갖는 그러한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내훈』이 이끄는 고전의 세계가 중세 유교질서에 입각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논리로 가부장적 윤리를 비판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당대에 『내훈』 편찬이 갖는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도 엄연히 존재한다. 당대적 의의를 평가한다고 해서 『내훈』이 지향한 고전의 세계에서나 통용될 법한 표현을 답습하는 것은 동어반복일 뿐이다. 중세 여성어문교육을 위한 ‘읽기교재’라는 측면에서 『내훈』의 텍스트 구성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전 읽기’라는 교육적 기능과 효과를 논의한 것은 『내훈』 편찬의 의의나 텍스트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시도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지용 편, 『내훈』(영인),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9.
- 고은강, 「『내훈』 연구 - 유학의 여성윤리」, 『태동고전연구』18,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2, 133-154쪽.
- 김민수, 『국어학사의 기본 이해』, 집문당, 1987.
- 김성우·최종덕,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20-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9, 11-42쪽.
- 김성룡, 「전범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창간호,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255-292쪽.
- 김인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왕규, 「16세기 사림파의 독서에 대한 담론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적 국면」, 『독서연구』 10, 한국독서학회, 2003, 55-76쪽.
- 노명완·이차숙, 『문식성 연구』, 박이정출판사, 2002.
- 박무영, 「김호연재의 생애와 『호연직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 한국고전여성학회, 2001, 97-125쪽.
-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3-349쪽.
- 백두현, 「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서강인문논총』2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57-203쪽.
- 윤여탁, 「국어교육의 본질과 교과서」, 『선청어문』36, 2008, 531-552쪽.
- 이경하, 「『내훈』과 ‘소학·열녀·여교·명감’의 관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237-271쪽.
- 이경하, 「15세기 최고의 여성 지식인, 인수대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6, 149-177쪽.
- 이경하, 「17세기 사족여성의 한문생활, 그 보편과 특수」, 『국어국문학』140, 국어국문학학회, 2005, 101-120쪽.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경하,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3, 389-415쪽.
-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2007.
- 이종묵,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sia)」,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179-208쪽.
-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 조경원, 「유교 여훈서의 교육원리에 관한 철학적 분석」, 『여성학논집』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6.
- 조경원,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분석」, 『여성학논집』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5.
- 조동일,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지식산업사, 1999.
- 조희정, 「고전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구도 - 근대적 변화 양상의 검토를 통해」, 『국어교육학연구』21, 국어교육학회, 2004, 121-155쪽.
- 조희정, 「사회적 문해력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최연미, 「소혜왕후 한씨 『내훈』 판본고」, 『서지학연구』22, 2001, 351-370쪽.
-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6.
- 한희숙, 「조선초기 소혜왕후의 생애와 『내훈』」, 『한국사상과 문화』27,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81-129쪽.

국 문 요 약

본고의 목적은 15세기 후반에 간행된 『내훈』이 당대 여성들의 어문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내훈』은 중세 유교문명권의 가부장적 윤리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여성규범서이다. 그러나 텍스트 구성상의 특징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내훈』은 성별지식을 전달하는 윤리규범서라는 테두리에 한정시킬 수 없어 보인다. 이에 중세 이중언어체계 내에서 여성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어문교육용 읽기교재라는 측면에서, 『내훈』 텍스트가 여성의 문식성 신장에 기여하는 교육적 기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내훈』은 여성독자들이 한자와 한글의 기초적인 이해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고전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읽기교재이다. 『내훈』이 여성독자를 위해 한문 원문과 함께 언해문을 병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편찬자가 여성독자를 위해 첨가한 세주가 언해문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은 기존의 『내훈』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못한 점이다. 이 세주들은 여성독자들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자어, 고유명사,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연설명에 동원되었다. 또한 여성독자들은 『내훈』이 발췌 인용한 『소학』을 매개로 하여 유교문명권의 대표적인 고전들을 접할 수 있었다. 문자 사용능력과 고전 읽기가 사고력 신장과 자아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면, 『내훈』은 중세 여성의 어문교육용 읽기교재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투고일 2010. 1. 15.

수정일 2010. 2. 22.

게재 확정일 2010. 3. 6.

주제어(keyword) 내훈(*Naehun*), 소혜왕후(*Queen Sohye*), 문식성(*literacy*), 어문교육(*literary education*), 읽기교재(*textbook for reading*), 고전(*classic*)